

PA-29

콩 수확시기 및 강우처리에 따른 품종별 종실특성 및 수량 변이

윤홍태^{1*}, 서민정¹, 박명렬¹, 이유영², 이병원², 김미향²

¹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²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서론]

콩 수확기 강우가 지속되어 수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콩 품질 저하 및 수량 감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강우에 노출되어 수확작업의 지연될 때 콩 품종별 종실특성 및 수량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장류·두부용 품종으로 우람 등 20품종, 콩나물용 품종으로 해품 등 10품종을 2018년 6월 9일 파종하여 수확적기 전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4회 강우 처리(1~2일/1회)를 하였다. 수확 시기는 품종별로 10월 상순~하순 적기 수확을 기준으로 30일 지연 수확하였다. 조사항목은 품종별 주요생육특성 및 수량구성요소, 종실 및 발아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험품종의 성숙기는 10월 7일~10월 27일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100립중은 8.3~32.0g, 수량은 206~348 kg/10a 이었다. 적기 수확 대비 30일 후 지연 수확한 경우 강우 처리구의 전체 시험품종의 평균수량은 적기 수확 대비 9.2% 감소한 44.4kg 9.2%이었다. 적기 수확 대비 30일 지연 수확한 강우처리구에서 10%이하의 감수율을 나타낸 품종은 두유콩, 단백질콩, 진품콩, 늘찬, 신화, 조양1호이었다. 전체시험품종의 적기수확 시 이병립률은 0.3%이었으나, 강우처리 후 30일 지연수확한 시험구에서는 1.9%로 수확이 지연되고, 강우노출빈도가 높을수록 증가였다. 대부분의 품종에서 적기 수확 대비 수확이 지연되고 강우에 노출 될수록 발아를 낮아지고 발아세도 약하였다. 콩나물용 소립종 10품종을 대상으로 배축신장성을 조사한 결과 수확이 지연되고 강우처리시 배축 신장성이 불량한 경향이었다.

[사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연구(사업번호: PJ013374042019)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31-695-4046, E-mail. soy6887@korea.kr